

문화특집

김제 종자생산 단계 과정 2차 개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는 종자생명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민간육종연구단지에 필요한 기초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생산 단계 과정 1차 교육을 성황리에 마치고 2차 교육 과정을 11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교육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교육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과장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현황에 대한 특강과 안전관리협회 안도영 강사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종자생산 단계과정 12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8월 11일부터 9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화요일까지 6주간 40시간에 걸쳐 종자생산의 실질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학습 병행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종자생산 단계 교육 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종자사상현황, 종자사상현황, 교양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작물교육으로 작물생리 및 재배, 병해충상식, 육종토양관리 등으로 진행되며 중요화사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종자생산 단계과정 교육을 통해서 종자산업 특구와 민간육종연구단지의 미래 종자 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인력 육성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광복절 71주년 기념 공연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 타악 한국무용, 태권도, 비보이가 결합되어 비발갑처럼 조화를 이룬 난버널 퍼포먼스(무언어 퓨전 예술극) 공연인 '아리랑 파티고!'가 12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아리랑파티'는 타악 솔리스트 최소리 감독의 연주를 기본으로 소리(타악), 춤(태권도, 비보이), 화랑(태권도, 마살아트, 기발)가 출연한다.

소리파 타악은 전통 가락과 서양의 비트를 적절히 조화시킨 두드림 연주로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한국무용은 여성적인 우아함과 환상적인 무용으로 비보이는 아리랑 선율에 맞춘 파워풀한 춤사위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한국무용과 자랑스런 태권도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비보이를 보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기뻐하는 뜻 깊은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9월 독서문화행사 참가자 모집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세계와 반갑다고 안녕! 작가와의 만남 등 행사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앞두고 독서 생활 장려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내달 3일과 10일 이틀 간 6세~7세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 학부모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가할 수 있는 4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3일 '테두리돌 굴러 가네'와 '과월호 잡지 교부'가 예정되어 있다. 테두리돌 굴러 가네는 오후 2시~3시 1층 어린이자료실 책 놀이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6세~7세 아동이 대상이며, 그림책과 놀이를 접목한 체험독서프로그램이다.

이어 3시~4시에는 1층 다문화실에서 지난해 잡지를 무료로 배부하

는 과월호 잡지 교부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과월호 잡지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월간페이퍼, 일러스트 등 14종의 월간지와 시사인, 씨네21 등 3종의 주간지(총 250여부)이다. 1인 5부까지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10일에는 저자와의 만남과 책 표지로 가방 만들기 가운영된다. 당일 오후 2시~3시 1층 소강당에서 열리는 저자와의 만남은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일환이다. '세계와 반갑다고 안녕'의 저자 유다정 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정 작가는 '별명 신화를 만나다'로 2005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이밖에도 '부발루에게 수영을 가르

칠 걸 그랬어', '이웃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까?', '우리 세상의 기호들', '난 한글에 흠뻑 반했어' 등을 저술했다.

한편 '책 표지로 가방 만들기(6세~8세)'는 오후 3시~4시 1층 다문화실에서 진행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정읍시민이 도서관에 좀 더 가까이 오고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방문(중앙도서관 1층 안내 데스크)이나 전화(☎539-6438 6439)로 접수(10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ceplib.jong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7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건식 시장과 독립유공자유족 7명 오찬 함께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11일 국가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관내 식당에서 이건식 김제시장과 독립유공자유족 7명이 오찬을 함께하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진식 시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하여 회상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유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제시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 7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하

고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호국선열사업을 강화하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과 국가유공자 1,600세대에게 명패달아주기 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고, 6.25 참전유공자 16분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전수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현 교원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보훈단체회원들의 편의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복지팀 가동

4개 동지역에 서비스 제공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지난 6월달 4개 동지역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명으로 조직된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기금담당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복지사각지대)을 발굴하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복지관 등 민간지원과의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제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에서 8월부터 복지허브화시행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는 지역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배분사업을 실시하며, 김제시에서는 2개 대상지역이 8월 10일까지 공모신청하여 개소당 600만원, 총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비는 읍면동이 발굴한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

과 지역의 복지문제해결을 위한 의제를 수행하는 특화사업을 위해 활용된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수행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었다면,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웃이 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앞장서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이웃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협력 없이는 읍면동 허브화가 올바르게 정착 할 수 없는 만큼, 행민관협력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회 이한수 위원 장신리 일대 물공급 총력

연일 폭염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자 부안군의회 이한수 산업건설위원장이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을 하나하나 확인 물공급에 최선을 다해 군민과 함께 하는 의장 상정했다.

하서면 장신리 50ha의 농경지는 물이 가장 필요한 수잉기 때에 소중한 물을 공급할 시기에 논바닥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산업건설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관리단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수자원관리부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8~9일 부안댐안수장의 완전가동을 이끌어 장신리·현지제 저수율을 만수위로 채웠다.

이에 따라 하서면 장신리 일대 농가들은 비농사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수잉기 때에 소중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장신리 장신마을 박정애 이장과 고



일 체씨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려면 비가 300mm 이상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와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산업건설위원장은 "모내기 때부터 하서면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이른 새벽부터 관내 저수지의 저수율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책 마련과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신리·현지제 저수지는 면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현제 저가 위치한 장신마을은 극심한 물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번 캠프는 나눔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함께 떠나는 1박2일 가족캠핑 실시

정읍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질환자와 가족 22명 대상

정읍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난 8일부터 2일 간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회원과 가족 22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여름 가족캠핑을 실시했다.

나눔과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내장산 국립공원 여가캠핑장에서 미니운동회와 요리

콘서트, 장기자랑, 숲 체험 및 문화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밀감도 쌓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1박 2일 가족캠핑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기를 더하고 가족 간 유대강화와 함께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키웠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신장애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